

'코로나19' 발생 줄었지만 집단감염 계속

하루새 신규 152명 늘어 누적 확진자 8565명...사망 93명 대구 요양병원서 집단 발생... '거리두기' 등 개인위생 철저히

코로나19 국내 확진환자 발생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국 곳곳에서 지역 사회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등이 강조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신천지 신도에 의한 폭발적인 코로나19 발생이 줄어들면서 확진자 증가가 감소 추세"라면서 "지역사회에서 산발적으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힘드시겠지만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서로 몸은 멀어지더라도 사회 공동체로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마음만은 가까이에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 0시 기준보다 152명이 늘어난 총

8565명으로 집계됐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지난 14일 이후 닷새 만에 다시 100명을 넘어선 것이다. 신규 확진자는 14일 107명에서 15일 76명으로 떨어진 이후 전날까지 연일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신규 확진자 152명 가운데 109명은 대구·경북에서 나왔다. 대구 97명, 경북 12명이다. 대구에서는 한사랑요양병원 집단 감염 등이 확인되며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다.

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대구 6241명, 경북 1190명이며, 광주는 18명, 전남은 5명을 유지했다. 확진자 중에서는 여성(61.52%)이 남성(38.48%)보다 많았다.

국내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총 93명이다. 공식 집계로는 전날보다 7명(85~91번째)이 추가됐고, 경북에서 1명(92번째)이 더 확인됐다. 치명률은 사망자 93명을 기준으로 1.07%다.

완치해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는 407명이 늘어 총 1947명이 됐다.



재래시장도 꼼꼼히... '코로나19' 방역
광주시 북구 말바우시장 상인회원과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이 시장 보행로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사람은 30만 명이 넘어섰다. 확진자를 포함해 30만 7024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 중 28만2555

명이 '음성'으로 확인됐다. 1만5천904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대구에서 온 편지

주먹밥이라는 음식에 대해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코로나 확진자인 대구시민이 광주에서 치료받은 후, 퇴원선물로 주먹밥을 광주시로부터 받기 전까지는 말이다.

주먹밥의 기원에 대해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주먹밥은 오래 전부터 먼 길을 떠날 때는 비상식량으로, 전쟁 시에는 전투식량으로, 재난 시에는 구호식량으로 사용되었다. 임진왜란 등 국난 위기 때의 주먹밥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힘이 되었고, 6·25전쟁에서 주먹밥은 조국을 수호하는 국군의 전투력이었으며,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주먹밥은 '나눔과 연대의 정신' 그 자체였다.

주먹밥은 한입 베어 물었을 때 형태가 허물어지지 않아야 하며 밥알이 잘 뭉치게 하기 위해 지루할 정도로 밥을 치대야만 하는데, 만드는 과정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는 죽는다는 격언이 절로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주먹밥의 속성은 힘있고, 연줄도 없고, 가진 것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선량한 사람들이 이

성해 새로운 남부권 시대를 열어 갈 준비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해묵은 지역감정이 양 지역에서 점점 사라지는 부수적 효과도 얻어가고 있다.

향후 철도, 도로 등 각종 인프라가 완성이 되면 대구와 광주의 인적 교류는 더욱 더 빈번해지고 양 지역의 콘텐츠를 융합할 수 있는 공동의 플랫폼도 생길 수 있다. 특히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여 양 지역의 생활권이 중첩되는 부분이 생긴다면 점심은 대구에서, 저녁은 광주에서 보낼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관광 상품이 만들어지고 2·28과 5·18을 함께 투어할 수 있는 정신문화향유 콘텐츠도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광주주먹밥 전문점이 생겼다는 뉴스를 보았다. 특이한 점은 대표메뉴인 주먹밥세트가 5·18정신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판매가격이 5180원이란 점이다. 향후 '달빛주먹밥'이 생긴다면 그 가격은 5·18과 2·28의 의미가 합쳐진 7460원(5180+2280)이었던 좋겠다. 또한 대구에도 2·28정신을 나타내는 2280원짜리 주먹밥이 생

대구를 위로한 '광주주먹밥' 달빛동맹 우정에 힘 납니다

님, 지역, 지위를 넘어 반드시 함께 살아가겠다는 나눔과 연대의 다짐처럼 느껴진다.

확진판정을 받고도 치료 병상을 구하지 못한 대구확진자들에 대한 병상 연대를 실천한 광주공동체의 손길은 뭉치고 나누며 살아가겠다는 주먹밥처럼 다가왔다. 깃누르며 쉽게 부서지는 밥 한 알 한 알이 모여, 서로 의지하며 뭉쳐, 단단한 주먹밥이 되었을 때, 그 맛과 촉촉함이 오래 유지되듯이, 국가적 재난 앞에 다가온 광주의 운명은 대구와 광주의 물리적 거리는 물론 심리적 거리를 극복하게 만든 것 같다.

지역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예산확보 등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는 지방자치의 현실에서 각 도시들은 한정된 자원을 놓고 싸워야만 한다. 하지만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먹밥처럼 뭉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았다. 특히 수십 년 동안 소모적인 지역갈등의 중심에 있던 대구와 광주는 의료산업 유치를 위해 협약을 맺은 것이 시초라고 알려진 달빛동맹을 통해 그간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광주-대구 간 내륙철도 건설 및 88고속도로 조기 확장 등의 정책이 성공을 이루었고, 또 미래의 성장동력을 함께 형

겨 광주와 대구가 공동으로 주먹밥 관련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양 도시의 교집합은 확대될 것으로 본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 사회에 봉쇄, 격리 등의 슬픈 단어들도 낳았다. 그러나 달빛의료지원단을 보내주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병상을 내어준 광주의 우정으로 주먹밥처럼 뭉치고 연대하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항상 대구와 광주 앞에 좋은 일만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시련과 어려움이 닥칠수록 대구와 광주는 5·18과 2·28의 위대한 정신으로 주먹밥처럼 뭉칠 무한한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라고 믿는다.

올해 한국시리즈가 삼성라이온즈와 기아타이거즈의 대결이 되어 주먹밥 시리즈가 탄생된다면, 야구장에서 주먹밥을 먹으며 '봉쇄'가 아닌 '연대'가 승리하였고 광주가 대구의 진정한 친구였음을 기억하며 자축하고 싶다.

달빛을 머금은 주먹밥처럼, 대구와 광주의 우정, 영원 하라!

이상철 (42)
자유기고가 (대구 서구)

'코로나19' 전시 태세... 각국 의료물자 생산

트럼프 '국방물자생산법' 발동...GM·포드 인공호흡기 생산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를 덮치면서 보건과 전혀 관계가 없던 민간 기업들이 의료물자 생산에 가세하고 있다. 지구촌 정치 지도자들이 이번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규정할 가운데 전시상황에서 민간 부문을 군수물자 생산에 동원하는 것과 같은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전시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며 현 상황을 "중국 바이러스에 대항한 우리의 전쟁"이라고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민간 기업들이 코로나19 대처에 필요한 의료 물자 생산을 확대하도록 하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발동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시처럼 긴박한 상황에 동원되는 이 법은 대통령이 국방, 에너지, 우주, 국토 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물자 생산을 확

대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이미 적지 않은 기업들이 코로나19와 관련된 투입물 의료 물자 생산에 가세하는 모양새다.

경제적 포천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때 탱크 등 무기 생산에 투입된 적이 있던 자동차업체 제너럴 모터스(GM)는 이미 중국 루저우시에 있는 자사 생산공장에서 수송용 마스크를 제조하고 있다. GM과 포드 등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포드도 인공호흡기와 기타 장비 생산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면서 "정부와의 사전논의를 거쳐 타당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부지사는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안전행정부 제도정책관과 행정자치부 조직정책관,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 7월 30일 제40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로 취임했다. 그는 행정안전부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으로는 전남도 기획실장을 지낸 송상락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이 내정됐다.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23일 이임

후임 송상락 행안부 조직정책관

박병호(사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1년 8개월의 행정부지사 임기를 마무리하고 23일 이임한다. 박 부지사는 김영록 전남지사의 민선 7기 첫 행정부지사로 부임한 이래, 도정현안 추진을 위해 공직자와 도민과의 소통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전국 시도 주민생활만족도 조사에서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연속 1위와 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했다. 또 지난해 7

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남 방문시, 전남 새천년 비전인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 선포식을 지휘했으며, 나주 SRF 열병합 발전시설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이끄는 등 도정 전반에 걸쳐 성과를 남겼다.

박 부지사는 "공직생활 마무리를 고향발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며



박 부지사는 "공직생활 마무리를 고향발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며

"전남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영록 도지사님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준 공직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오매나'

문화관광 '오매광주' 캐릭터

광주를 상징하는 5가지 매력 '오매(五매) 광주' 캐릭터 이름이 '오매나'로 결정됐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매나는 최근 캐릭터 작명 이벤트에 접수된 1천215개 이름 중 전문가 등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오매나는 전라도 사투리로 '어머니'처럼 놀라움을 표현하는 감탄사로, 광주 문화관광 브랜드인 오매광주와 발음이 유사하고 친근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빛 광(光)자 형상을 5가지 색으로 표현한 캐릭터 디자인도 확정됐다. 광주시는 캐릭터를 바탕으로 홍보물, 이모티콘, 인형 등 관광상품을 만들어 홍보하고 남도관광센터 아트마켓 등에서 판매도 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지난 20년간 14,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와 재테크 강의

전임강사: 정영수 경영학박사(부동산 전공)

전남대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평생교육공로: "교육부장관상" 수상
MBC-TV방송국 경제특강
공무원연수원 등 500회 이상 초청특강

특 전
자격취득 희망시 국가공인 빌딩경영관리사, 분양상담사, 부동산관리분석사 자격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료 후 모임체 결성하여 지도함

강의기간: 2020년 3월~6월(15주)
정원: 선착순 50명 마감

조선대 평생교육원
- 부동산컨설팅과 재테크 매주(수) 19시~21시
- 접수처: 062)230-7700~2

광주교육대 평생교육원(무료주차)
- 부동산 실전경매 매주(목) 19시~21시
- 접수처: 062)520-4243

부동산강의 및 부동산경매 관련 상담
010-5613-1808 정영수 박사

"공장부지 매매" (금 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 공장용지 14,916.9㎡, 건물 998㎡(H빔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 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사위장, 화장실 시설 구비
- 건물 일부 임대 중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약 700㎡)
- 매월 4백만원 이상 수입(임대료 및 태양광 수익) 태양광은 대출 없고 순수익 임

※ 매매가 25.5억 ※

인 하 건 설(주)
010-3605-0214
062)655-4840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 강 (6개월 과정)

- 일 시: 2020. 3. 3(화) 오후7시
- 장 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풍수+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2020. 2. 25(화) 오후7시.
- 장 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누구나 (선착순 00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목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